

비교육적인 수능 방송은 중단해야 한다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duckhwan@sogang.ac.kr

사 교육 열풍을 잠재우겠다면서 요란하게 시작했던 수능 방송의 폐해가 드러났다. 수능 방송을 독점하고 있는 교육방송(EBS)이 사실은 방송 교재 장사로 올린 짝퉁 수익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고 한다. 방송 교재를 학생들에게 제작 비용의 5배가 넘는 값으로 팔았다고 한다. 수능을 볼 때마다 수능 방송의 높은 '연계율'을 요란하게 광고해주는 교육부 덕분에 교육 방송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듯이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 왔던 셈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방송 교재의 제작비용은 대부분 먹고 마시는 데 써버렸고, 수익금의 상당 부분도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제작 원가의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교육방송의 도덕적 해이도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수능 방송을 고집하는 교육 당국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의미 없는 수능시험과 수능방송의 연계율

우선 교육 당국이 주장하는 '연계율'의 실체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허구의 숫자일 뿐이다. 수능 방송의 교재에 실린 문제가 원형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만에 하나라도 수능에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출제하는 수능이 방송국이 이미 만들어놓은 문제를 그대로 '베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객관식 문제의 유형이 비슷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몇 년 전에는 수능 문제의 지문이 출제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필한 문제집과 같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교육방송이 만든 교재에 소개

된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출제된 것이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연계율'은 수능과 방송 교재의 문제들이 취급하는 핵심 개념이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능의 출제 범위는 극도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고등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서 출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의 수가 무한히 많을 수는 없다. 결국 방송 교재의 적중률이 높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능 문제의 경우와는 달리 방송 교재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문제가 소개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개념을 다루어야 하는 방송 교재가 굳이 어떤 개념을 빼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모든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포함시켜 두기만 하면 연계율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능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몇 퍼센트가 방송 교재에 소개된 문제와 비슷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연계율이 100퍼센트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 방송 교재가 교육과정조차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수능 문제 중에서 방송 교재에 소개된 것과 비슷한 문제의 비율이 아니다. 거꾸로 방송 교재에 소개된 문제 중에서 수능 문제와 비슷한 문제의 비율이 더 의미가 있다. 이 비율이 바로 의미가 있는 수능 교재의 적중률이다. 이 비율이 높다면 방송 교재가 수능 문제를 예측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비율이 낮다면 방송 교재는 특별히 쓸모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방송 교재를 공부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엄청

이제 교육방송은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진정한 ‘교육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교육방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수준 높은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학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소개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의 내용을 다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외 석학(碩學)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소개해주는 것도 유용하다.

나게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보아야 하고, 결국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 당국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연계율’을 내세워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육방송의 폭리를 도와주었던 셈이다.

학생들의 폭넓은 사고능력 향상 가로막아

그러나 수능 방송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기법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수능 방송이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객관식 문제도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나 성취도를 측정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그 효율은 더욱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폭넓은 사고(思考)능력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육방송의 수능 방송처럼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는 기막힌 기법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넓은 지식보다는 주어진 답안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아무 쓸모 없는 ‘기술’만 향상될 뿐이다.

수능 방송에 매달리는 학생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수능 방송을 통해서 수능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교육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실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욱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이나 형편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수능 방송에 매달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된다. 수능 방송에 그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이 교육 당국의 요란한 선전의 허구성을 파악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객관식 문제 풀이 중심의 수능 방송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비교육적인 수능 방송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제 교육방송은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진정한 ‘교육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는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진정한 교육방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열악한 공교육 현장에서 쉽게 제공할 수 없는 교육 내용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수준 높은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학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소개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의 내용을 다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외 석학(碩學)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소개해주는 것도 유용하다. 상업성이 철저히 배제된 수준 높은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방송이 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S,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바로 그런 방송들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교육방송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비교육적인 수능 방송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과도한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교육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당국이 스스로 공교육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우리 공교육이 되살아날 수가 없다. ㉔